

실상사 귀농학교 교육장 세운다

정부 2억4천만원 지원...연내완공

유기농법·생태교육장 활성화 등 기대

지리산 실상사 귀농전문학교가 전용 교육장을 마련하고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실상사 귀농전문학교(교장·도법스님)는 6월26일 정부로부터 2억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전복 남내면 산내면 백일리에 부지 3,750평의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설치하게 됐다. 이로써 실상사 귀농학교는 2년만에 정부 지원을 받는 공인 귀농학교로 발돋움해 교육과 생활공간이 결합된 생태 산촌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15일경 친환경적인 휴집으로 건물 기본 설계를 완료, 연말까지 100평을 수용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신축해 내년부터 정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와 전북도로부터 22명의 위탁교육을 의뢰받아 6월26일부터 7월21일까지 교육을 실시중인 귀농전문학교는 이미 전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놓을 정도로 유기농법·생태교육의 중심도량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98년 설립된 귀농전문학교는 그간 80명의 농사꾼을 배출하는 동안 사할 경내지에 위치한 비닐 하우스 안에 임시 사무실과 강의실·숙소를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열악한 조건이었으나, 교육장이 건립되

면 명실상부한 귀농전문교육의 요망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

실상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3만여평의 농지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농업교육장, 생태농장, 청소년 생태학교, 생태 주거지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기 위한 지역복지공간으로도 활용해 불교도농공체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다.

실상사는 98년 9월부터 불교귀농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생태 유기농을 하고 있다. 성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식구들 다 생태적 삶, 즉 한 톨한 생명체적 삶에 대한 의지는 뚜렷하다는 것이 교장 도법스님의 말이다.

'생태공동체가 전국에 10여 곳 정도 있지만 세계관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한계에 부딪쳐 그 대안으로 펼쳐지고 있는 생태공동체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교육생들이 정육기(가운대)선생의 '우리웃만들기(천연염색)' 강의를 듣고 있다.

는 그 한계를 가져온 2분법적·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 자체를 미망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안운동 역시 혼란과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상사 생태공동체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신도불이(身土不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98년 3월 도법스님에 의해 시작

된 불교귀농운동이 자연과 인간의 화해를 강조하는 생태적 귀농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간의 화해를 강조하는 공동체적 귀농으로 확대되고, 생활협동조합운동, 대안학교 운동 등 다양한 불교적 사회 대안운동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중 단 소 식

조계종

봉선사 여름숙학학교 열려

2교구본사 광릉 봉선사(주지 밀운)는 19~21일 '자연과 함께 부처님의 품으로'란 주제로 제27회 여름숙학학교를 열었다. 유치부, 초등부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여름학교의 동참금은 3만5천원이며, 배우수건, 필기도구, 담요 1매, 수영복 등을 지급해야 한다. (031)527-1951

적지사 주지선출 산중총회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는 15일 오후1시 설법전에서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견'으로 산중총회를 열었다. 승남 25년이상, 세남 45세 이상으로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교구 재적승 중 자격이 되는 후보자는 4일까지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054)436-6174

포교를 위한 조직과 기관 등이 만다라적 구조로 전문성 발휘 △포교에 첨단과학기술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준남 위덕대 강사가 '서구에서의 불교수용과 포교방법', 차차석 동국대 강사가 '개방후 중국내 불교의 사회적 위상변화와 그 역할, 덕일 위덕대 교수가 '진각종의 초기 교화 이념', 무의 진각종 포교부장이 '진각종 포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발표했다.

태고종

선암사 가족수련회

총무원은 26~29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2회 여름불교 가족수련회를 개최한다. '우리 모두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가족수련회에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반과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반으로 나뉘어 찬불가 읊조림, 참선실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후도문 작성 등의 수행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홍성에 기원정사 개원

총남 홍성군 홍성읍에 대지 150평 건평 240평 3층 규모의 기원정사(주지 동우)가 6월 21일 개원했다. 인곡 총무원장스님, 지성 총무부장 스님, 이상선 홍성군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행된 개원식에서 주지 동우스님은 "홍성 서산 등 낙후된 서해지역의 불교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불선교종

영평사 삼존불 점안

경남 창원시 영평사(주지 정림)는 6월 29일 삼존스님(자비종 총무원장)을 증명법사로 약사관을 지장 보살 등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진각종

21세기 포교방향 세미나

창종 53주년을 기념해 6월 23일 승현클럽에서 '21세기 포교현실과 새로운 방향 모색'대 주제의 포교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경집씨(진각종 총학연구실 선임연구원)는 '한국불교 포교현황과 전망'에서 "노인신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가 새로운 시대 포교의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포교사를 양성해 어린이 학생 주무 장래인 노인 외국인 등 상대에 따른 다양한 포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포교사 자격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생 밀교문화연구원장은 '불교포교의 현대적 방향'에서 현대에 맞는 효과적인 포교방안으로 △인적자원 개발 위한 기금 마련 △포교 대상과 분야를 세분화해 상호 협력 보완 △불전 번역 등에 공동 및 연합 작업 △포교의 일관성 유지 △각 종단과 단체들, 연구

가운데 겨뤘다.〈사진〉 마애여래좌상 보호각은 전통 한식 주실포 맞배지붕에 법당 25평 규모로 총공사비 4억3천만원이 소요되며, 올 연말 완공된다. 주홍직 광주지사장

되고 있다.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스님은 "군수 면담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종교편향의 시각에서 신도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와 법적 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천=김재경 기자

베트남 광도스님

노벨평화상 후보올라

베트남의 저명한 불교학자인 광도(72) 스님이 최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광도스님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베트남 불교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온 공로를 인정받아 후보로 추천됐다. 권형진 기자

가운대 거행했다.〈사진〉

마애여래좌상 보호각은 전통 한식 주실포 맞배지붕에 법당 25평 규모로 총공사비 4억3천만원이 소요되며, 올 연말 완공된다. 주홍직 광주지사장

6·25 50돌 위령대제

부산사암련 유엔모지서

부산 남·수영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원)는 6월25일 UN 모지 위령탑에서 6.25 한국전쟁 50주년을 추모하는 전통 영령 위령 대제를 봉행 했다. 또 문수불교문화관(원장 설곡)은 같은 날 문화회관 야외 광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통일열린 어린이 백일장도 개최했다. 천미희 기자

일주문 안에 일반주택 허가 '물의'

육천군 탁상 행정예 약사사 반발...소송 준비

충북 육천군 동이면에 소재한 여래종 분산 약사사(주지 명안) 일주문 경내에 육천군이 일반주택 건축 허가를 내어줘 문제가 되고 있다.

약사사 사하촌 주민인 천모(48)씨가 최근 약사사 일주문 내에 위치한 300여평의 사유지에 30여평의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육천군으로부터 받아내 사할측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천씨의 건축 예정지가 사할 부지로 둘러싸인 소규모의 개인 사유지인데다 건축시 사할 사도(私道)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사할측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청이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어

줬다는 데 있다. 그러나 육천군은 건축허가는 적법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개인 사유지를 매수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여래사는 당초 천씨가 관할 동이면에 사할 경내지인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지 않자,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육천군에서 허가를 취득한 것도 군청의 탁상행정에서 기인한 행정착오로 보고 있다.

특히 천씨는 사할로부터 몇백의 합의금을 받을 생각으로 사할 부지 밖에 없어 사할측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청이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어

지리산 불락사 빨치산 천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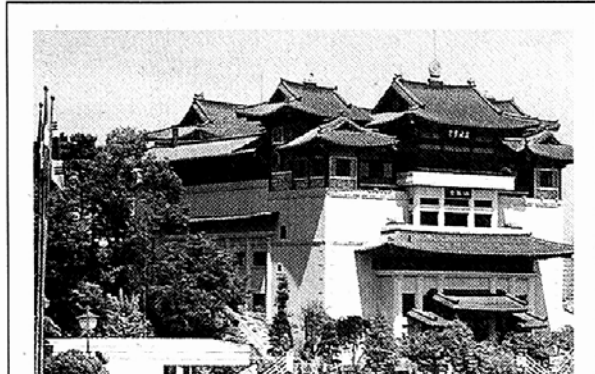
50년 만에 빨치산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가 6월 24일 오후 전남 구례군 토지면 불락사에서 봉행됐다.

'지리산 원천 천도제'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중 지리산에서 스러져 간 남부군이나 빨치산, 군경토벌대, 양민들의 원혼을 천도함으로써 가슴아팠던 과거를 벗어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점에서 7000만 한민족의 성숙된 만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전주, 김해 등지에서 100여명의 불자와 관광객이 참여해, 영혼들을 극락 세계로 이끄는 지전춤과 승무 등을 함께 감상

했다. 이은자 기자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총무원장 금명)은 6월23일 광주시 운천사 마애여래좌상(광주시 유형문화재 제4호) 보호각(법당) 복원공사 기공식을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한



2일부터 신도시 포교에 나선 일산 여래사 전경.

통도사 일산포교당 여래사 개원

지상 5층건물...4천여명 신도 확보

통도사 일산 포교당인 여래사가 2일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신도시 포교에 나섰다.

일산 신도시 정발당 자락에 자리잡은 여래사(주지 정우스님)는 2일 대법당인 만불전 본존불 점안 법요식을 열고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산 시민들을 상대로 한 법을 전파에 나섰다.

건평 3천여평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초대형 포교당인 여래사는 한식 통기와 5만장으로 채워진 지붕과 전통한식 추녀 그리고 대리석 벽 등 전통·현대의 조화미가 눈길을 모은다.

4·5층은 조계종 단일 사찰규모로는 최대인 대법당과 인동실이 자리하고 있고, 3층은 극락전과 승방, 2층은 기도실, 1층은 청소년회관과 종루·전산실, 지하층에는 소극장과 시청각실이 자리잡고 있다.

97년 2월 착공후 3년만에 문을 연 여래사는 이미 4000여명의 신도를 확보, 일산의 신행요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과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우스님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일산 시민들을 위해 여래사 지하 소극장에 극단 '신시'를 입주시켜 연극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할 계획"이라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포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래사는 본존불 점안 법요식이 끝난 직후 인간문화재 임이조씨의 승무, 박병천씨의 진도 북춤과 사물놀이, 변재남씨의 대금 산조 및 일본 정경사 불교 아악단의 아악공연 등 특별 문화공연도 함께 개최했다. (031)905-7766 김재경 기자

웅진코웨이에서 2000년도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렌탈사업에 동참할 지부장 후보를 초빙합니다.

支部長후보자 (사업) 설명회

지부장이란?
웅진코웨이는 독립재산 성격인 지부 단위 사업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지부는 회사가 일용한 지부장에 의해 경영하고 있으며 제반사업 여건을 회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장점
자본 부담이나 실패에 따른 두려움없이 자영사업의 보람과 능력 만큼의 소득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98년 5월 렌탈사업 착수에 힘입어 다른 어느때보다 활기찬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부장 임용
일정한 과정을 거쳐 3개월 전후하여 임용되거나 복채 또는 특전에 의해 조건없이 임용됩니다.

- 자 격 : 서울, 경기지역 거주 35세이상 59세 미만 남·녀
- * 경력이나 학력보다는 근면 성실한 사업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 접수일자 : 2000년 7월 3일 ~ 7월 5일(3일간)
- 설명회일시 : 2000년 7월 4일 ~ 7월 5일 11:00
- * 구비서류는 당사 소정양식에 따라 면접시 작성합니다.
- 실무교육과정 기간 동안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분자님 우대합니다.
- 접수 및 문의 (02)734-1058

WOONGJIN 웅진코웨이개발 (주)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중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오가피 알아봤더니 송가피)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열,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항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저 품 오가피주말액, 목욕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천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 0333)682-5033, 682-4965
- FAX :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l/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남!
6월은
잔잔한 바람
그리움 되어
하늘 끝
남 오시는 길 따라
연꽃등 밝혀주고

다시 태어나
고해의 바다 건너
어린 중생 품어주시려

억겁의 세월은
온누리 자비광명
피안의 언덕으로...

원장 이영숙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벨(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드폰 : 018) 277-5592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76-2
무량정사 주지 이태순 (영관)

위 사람은 본 종단에서 서기 2000년 6월 30일자로 제적 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양 지 은